

작담

한국 여성불교 오늘과 내일

조계종에 등록된 신도 중 여성불자는 67%로 남자신도의 두 배가 넘는다는(2001년 12월말 현재, 불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불자의 신령은 곧 한국불교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기록에 치중하고, 공익적 역할이나 기여도가 미미한 점은

코집이 '치마불교'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여성불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여성불자들의 잠재력을 불교발전을 위한 힘으로 개발하고 견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좌담회를 마련했다.



성태웅 교수

이현옥 씨

위정희 씨

참석자

- 성태웅 교수(간국대 철학)
- 이현옥 씨(동국대 불교학부 강사)
- 위정희 씨(경실련 회원사임국장)
- 일시 : 2002년 5월2일
- 장소 : 본사 불교사랑방

성태웅: 보살불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한국불교를 지탱해온 힘은 바로 보살불교다. 한국불교에서 여성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불교의 모습이다. 사실 여성불자들은 남성불자들보다 사찰 일이나 사회활동에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 기복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해서 '치마불교'라고 폄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여성불자들의 탓이 아니라, 불교계 전체의 책임이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이래 불교는 사찰 건축 위주의 불사에 치중했지, 불자들에게 대한 교육과 계몽이 없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신행활동상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비난만 해온 것이 사실이다.

다수 점하지만 위상 정립 안돼 피동적 역할 교계 전체 책임 중단차원 조직화·인재 양성

위정희: 한국불교를 치마불교나 보살불교라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종교성을 살피는 것도 빼놓아서는 안된다. 사람들은 여성들을 신도로 끌어들이고 불사에 이용만 했다. 여성성을 개발해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가톨릭의 경우 교리교육현장에 가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치마불교와 같이 여성들을 짊어 내리는 일은 없다. 교육과 문화 분야 등에서 여성들만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고, 거기에서 여성 신도들은 마음껏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교도 이렇게 여성성을 적극 개발한다면 여성불자들의 힘은 가히 폭발적일 것이다.

이현옥: 불교계에서 여성불자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사찰에 강의를 나가보면 여성불자의 신심이나 사회를 보는 시각이 전과는 달리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사실 여성불교의 정체성과 관련해 학회나 언론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여성불자와 비구니 스님을 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다양한 정책과 장기적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성태웅: 여성불자들의 역할에 비해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피동적인 존재로서의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개념이 바로 서야 한다. 지금은 재가자와 출가자의 역할 분담도 제대로 돼 있지 않

은 여성 출가자를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가히 혁명적인 것이다. 이를 현대적인 의미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부처님 당시의 정신을 반영한다면, 현재의 승단 풍토는 바뀌어야 마땅하다. 승단 자체에 남녀불평등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불자들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좌담자들은 여성불자들의 잠재력을 불교발전을 위한 '힘'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옥: 대만 불교사의 경우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은 자기 위치에서 서로 조화롭게 불교를 이끌어가고 있다. 사찰 운영은 비구니 스님이, 전체적인 총괄은 비구 스님들이 하고 있고,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 배제하는 가부장제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성태웅: 일반 사회에서 여성의 위상이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공감

젊은 여성 줄어... 참여프로그램 개발해야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한국불교 속에 남녀차별의식이 내재돼 있지만 비구니 스님의 독립적인 종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한국불교뿐이다. 다만 17세기 이후 성리학이 득세하고, 가부장적 요소가 도입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다.

하지만 불교에서 여성불자의 위상은 그보다 더 낮다.

이현옥: 사실이다. 여성불자들의 위상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비구니 스님의 위상이 강화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의 비구니 스님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조계종의 경우 중회에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 폭을 대폭 확대하는 것과 같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만 여성불자와 비구니 스님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각급 여성단체들도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다.

성태웅: 물론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성불자들의 자각과 함께 조직화가 이뤄져야 한다. 여성불자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그런 현실을 개선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것은 비구니 스님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한 두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정체성 확립 위한 공론화 필요 다양한 교육책 장기비전 제시 승단 남녀 불평등 풍토 개선되길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조직이 형성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위정희: 교육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그렇지만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여성불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은 교육은 방식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일단 어렵게 교리를 설명하다보니 쉽게 이해할 수 없고, 40~50대 어머니들이 피교육층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교육기회도 많지 않다. 쉽게 말하면 여성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불교와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만을 키울 뿐 신행생활과 사회에 적용할 지식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중장년층 여성불자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수법이 반드시 연구되고

보급돼야 한다. 또 하나, 20~30대의 젊은 여성층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다. 자원봉사나 이웃돕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중장년층에 의해 이뤄지고 있을 뿐 젊은 여성층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여성불자의 목소리가 커지기 위해서는 쾌거되고 의욕이 왕성한 젊은 여성불자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하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성태웅: 이제는 중단차원에서 여성불교를 조직화하고 인재양성을 해야 한다. 단 순히 몇몇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불자가 곧 불교의 미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불교를 활성화하겠다고 선언하고, 중앙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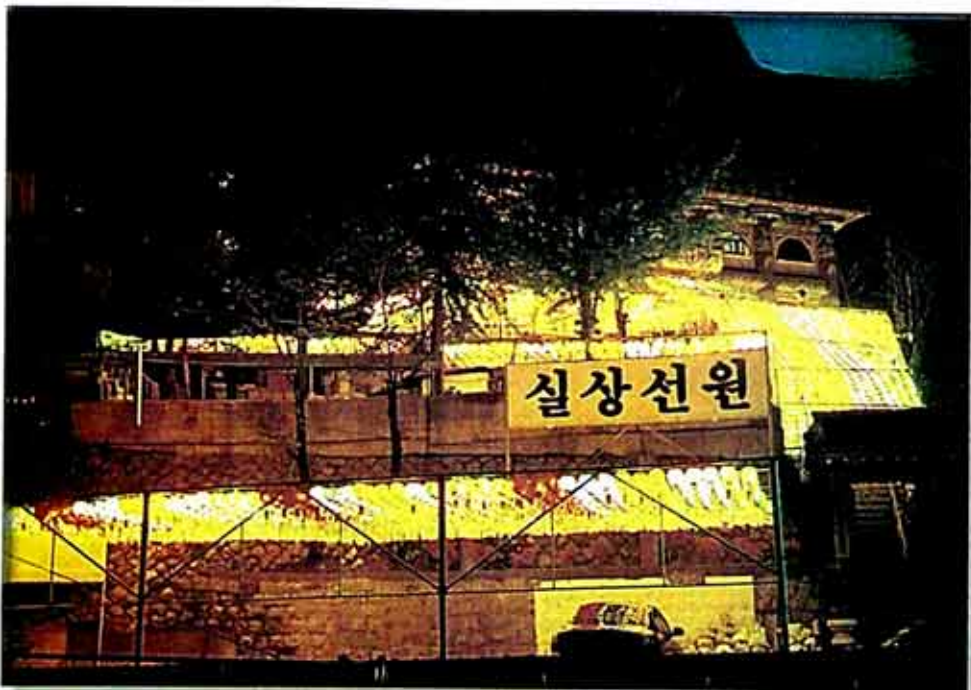
또한 재가운동차원에서 여성불교 활성화 운동이 전개돼야 한다. 당장 승단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면 승단이 여성불자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재가 불자들이 먼저 바람을 일으킨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단은 물론 불교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미 자원 봉사 등에서 여성 불자들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또 수행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불자들도 상당히 늘고 있다.

이현옥: 비구니 스님 강원이 있는 곳에 전문연구소를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성불교에 대해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여성불자들뿐만 아니라 비구니 스님들에게도 다양한 교육기회와 폭넓은 활동영역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위정희: 여성불자가 어떻게 조직화되고 의식화되고 있는지를 모든 불자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불교계 언론의 사명은 막중하다. 언론은 여성불자와 재가불자의 활동과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지면과 프로그램을 적극 할애해 생활불교와 실천불교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리 = 한명우 기자 mwhan@buddhism.com

어두운 곳에 연등의 불을



약사 제일 영험도량

봉사와 무료복지관이 있는

실상선원 천축사

선원장 성환

주 지 종일, 일광 총 무 광동훈

신도회장 김동호, 서정석, 박공례

실상선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02) 745-8503

천축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041) 734-2680